

두 가지 계약서 모두 각 항목 및 정산방법들은 계열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하다. 사용자(갑)과 사육농가(을)의 책임 및 권리 부분에서 사육농가(을)의 책임 임무 부분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실천되고 있으나, 사용자(갑)의 책임 부분은 계약서상으로 불이행되어도 농가로서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이런 사례는 해표푸드 부도 사태에서 증명되지 않았는가? 양계협회 위탁사육 표준계약서는

갑의 책임부분을 구체화 했을 뿐이다. 이 얼마나 정당한 요구인가?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계열화 사업으로 가야할 길이라면 정부관계부처는 외형 성장에 급하여 돌아보지 못한 부분을 다시 챙기고 재 점검하여 양계산업의 주체인 사육자와 계열업체가 나란히 살 수 있는 수평적 관계의 계열화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거듭나기를 을유년 닭의해를 맞아 기대해 본다.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활용방안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계약문화 만들자

오 기 석 (주) 마니커 축산본부 이사

을유년 닭의 해가 밝으면서 양계업계는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꿈꾸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지고 금년에는 닭의 기상처럼 양계업계에 모든 일이 잘 되길 기대해 본다.

육계산업은 그 동안 국민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급격한 성장

을 거듭해 왔다.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육계업은 계열화사업을 도입하였고, 현재 70%에 달하는 농가들이 계열화사업에



| 특집 ·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활용화 방안은 없는가!

참여할 정도로 계열화 사업이 국내에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육계산업은 계열화 사업이 정착되기 전까지 투기산업이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겪어야만 했다. 시세에 따라 일반 사육 농가들은 희비가 엇갈렸으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일부 사이비계열사들은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유통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계열화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 안정적인 육계사업기반을 다져오면서 농가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계열주체와 계약사육농가는 계약서를 통해 서로간의 계약관계를 맺게 되었고, 계약형태도 상대평가, 절대평가 등 회사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열화 시스템이 양계산업의 심한 경기변동에서 사육자를 보호하지만 사육자들도 계열화 시스템의 전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인 사업가들로서의 사육 농가들은 매일 경영상 그리고 관리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록 계열사들이 상담을 해주고 기술적인 도움을 주지만 결국 사육자는 자기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의존해야 한다

아울러 사육농가들의 현명한 판단과 개인적인 노력을 보여준 농가가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약서에 대한 논쟁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온 문제이며, 최근에도 계열사들과 생산자들간에 뜨거운 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것은 문제의 본질이 다소 변형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식탁에 위생적이고 맛있는 닭고기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녔다. 서로간의 신뢰회복을 통해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닭고기 생산에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이다. 최근 일부 시설이 낙후된 농장에서 사육된 닭들은 균일도가 일정하지 않고 흥부수종 등 등외품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생산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더 관심을 기울여 생산에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계약주체는 회사의 동향을 계약농가에게 대화를 통하여 필요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구할 것은 구해야한다고 본다

서로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 모두가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주체나 농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계약 주체나 농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계약 당사자간에 업계 모두를 위해서 서로의 애로사항을 대화로 하나씩 해결해나갔으면 한다

계약사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근 계열사와 농가들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하나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점점, 발전 발안을 제시하고 고쳐나갈 때 육계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FTA협상 등 우리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러한 시점에 육계산업을 우리시장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를 내세우기에 앞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양계인들로써 근본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풀어가면

서 한걸음씩 양보하여 업계발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활용방안

낮아진 사료요구율, 농가부담 커진다

이 희 동 국수농장 대표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 장기간 이어온 육계불황... 뒤이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이상기온에 의한 혹서피해 등 육계업에 맡겨놓은 이후 너무나 혹독했던 시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

닭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양계인들은 한껏 부풀어 있다. 지난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새로운 재기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육계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80%에 가까이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는 육계 생산자들의 생계가 가면 갈수록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육계인들은 계열화 사업에 길들여져 왔으며, 생산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약서에 의해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만들어진 표준계약서조차 계열사

들의 냉대속에 외면당해오면서 생산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닭을 키워봐도 노력에 대한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 물론 계열사 직원들이 과거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양관리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낮아진 사료요구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병아리 등 원자재의 품질이 과거보다 낮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료요구율이 낮아지면서 육계인들은 성적을 높이기 위해

